

국악 연주단복 개발을 위한 연구

김 여 경 · 김 정 민 · 홍 나 영⁺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Development of Performance Uniform for Korean Classical Music Band

Yeo Kyung Kim · Jeong Min Kim · Na Young Hong⁺

Instruct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투고일: 2014. 6. 11, 심사(수정)일: 2014. 6. 23, 게재확정일: 2014. 9. 2)

ABSTRACT

This study proposed the design development of performance uniform for Korean classical music. To do this, we considered the state of the performance uniform of the Korean Classical Music Band through photographic data. The research targeted the performers in Korean Classical Music Band, and conducted a survey for the preference of type, pattern, decoration, color and fabric materials. Based on the results, we extracted the design of performance uniform, which is suitable for the environment of Korean classical music performance and meets the substantial requirements of performers. The performance uniform that the current national or public Korean classical music bands are using, has two types: Western clothing and Hanbok. The attire is influenced by the genre of the music that they are playing because one of its main functions is to deliver the music to audience effectively. In addition,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uniform based on the gender, but no division in the design of clothing according to music instruments. However, the result of the survey show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preference by gender, but there was som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division of music instruments. On this study, we reflected this result in the design, and proposed the design of an convenient outer garment for everyone to wear in the music performance band.

Key words: design preference(디자인 선호도), Korean classical music(국악), orchestra(관현악단), performance uniform(연주단복)

I. 서론

최근 문화산업 범주의 확장으로 공연도 예술 활동을 넘어 산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산업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대중의 요구는 공연 예술의 다양화를 촉진시켰으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시연하는 전통 공연 역시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국악 공연 또한 관객의 기호에 따라 전통적인 국악 공연 외에 서구적인 요소를 결합한 공연을 연출하는 등 변화일로에 있다. 국악 연주를 위한 의상 역시 이러한 현실에 부응할 필요가 있으나, 연주 환경 변화와 연주복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까지 공연예술 의상 중 연주복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양 악기를 위한 것에 집중되어 왔으며¹⁾ 디자인 선호도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디자인 또는 패턴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달리 국악 연주복에 대한 연구로는 복식사의 일부분으로 국악을 연주하는 악인의 복식에 대한 연구²⁾이거나 근현대 시기 연주단복의 시대적인 변천에 대한 연구³⁾ 등이 이루어져 구체적인 국악 연주단복에 대한 고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질적인 국악 연주복에 대한 연구로는 가야금과 같은 일부 악기를 대상으로 하거나⁴⁾ 특정한 공연을 위한 의상 디자인에 대한 연구⁵⁾가 진행되었으므로 연구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국악 연주복에 대한 디자인 선호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제시하는 연구⁶⁾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개별 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독주보다는 합주 형식을 주로 하는 국악 공연의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제까지 국악 연주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주단복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국악 공연 환경에 적합하고 연주자의 실질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악 연주단체를 위한 연주단복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일반적인 연주복에 대한 이론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국악 연주의 특성과 현재 국악 연주복의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현재 국악 연주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를 대상으로 디자인 선호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국악 연주단복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자료 수집 중 설문 응답 방식의 연구 대상은 국악 연주단 소속 연주자를 포함한 전문 연주자들이며, 조사 기간은 2014년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다. 총 100부의 설문지 중 72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총 70부를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는 Hand Drawing, Adobe Illustrator CS5, Adobe Photoshop CS5를 활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일반적인 연주복의 특징

연주복은 연주 공연을 위한 의복이다. 무대 위에 펼쳐지는 시각적인 요소의 하나로서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 연주자가 착용함으로써 관객의 시선을 모으고 공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⁷⁾ 또, 연주복은 방송이나 영화, 게임과 같은 비대면 문화산업분야와 달리 관객을 공연장이라는 무대를 통하여 현장에서 관객에게 직접 노출된다. 조명이나 관객과의 거리에 따라 의상의 표현 효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다양한 연출에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연주복은 관객에게 곡의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곡의 내용은 연주복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된다. 또 악기에 따라 연주방법이나 동작에 차이를 보이므로 디자인에 있어 차별화가 요구되며, 경제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연의상은 특정한 공연기간에 착용 되는 것으로 일회적인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⁸⁾, 실제로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연주복의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주복 구비 방법이 대여>기성복 구매>맞춤 순으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⁹⁾ 구매나 맞춤의 경우에도 다양한 공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멀티-유즈(multi-use)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연주단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

두기 위한 경제성이나 관리성을 고려한 기능적인 디자인이 요구된다.

한편 연주복은 연주자의 미적 취향이나 신체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뿐 아니라 함께 연주하는 연주자가 착용한 연주복의 디자인이나 색상의 조화 역시 중요하다.¹⁰⁾ 독주, 합주 또는 소규모 실내악, 대규모 오케스트라 등의 연주단 구성은 역시 연주복 디자인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연주단체를 위한 연주단복의 경우에는 단체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2. 국악 연주단 현황과 연주단복의 특징

현재 착용되는 국악 연주단복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자료조사를 시행하였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국·공립 국악 연주단 25개¹¹⁾ 중에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제공하는 15개 연주단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4년 4월 10일부터 25일까지이다. 홈페이지 상에서 제공되는 시각 자료는 2차 자료로서 구체적인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으나 다양한 국악단 연주복의 현황을 반영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홈페이지의 사진자료와 문헌자료를 통해 분석한 국악 연주단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악연주단의 성격과 연주내용에 따라 연주복이 상이한 특징을 보였다. 국악은 다른 나라의 음악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음악'을 가리키는 말로 한국적인 정체성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

서 국악 연주 시에는 우리 의복인 한복을 입는데 최근 국악 공연의 내용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한복 뿐 아니라 공연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된 한복을 착용하고 있다.

현재 국악 연주는 크게 정악, 민속악, 창작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악단의 성격에 따라 정악단, 민속악단, 창작악단으로 구성된다. 정악(正樂)은 조선시대 궁중이나 양반 사회에서 연희되었던 음악으로 조선시대 궁중음악 연주 시 착용한 의복은 『악학궤범(樂學軌範)』에 나타나 있다. 악사(樂師), 악생(樂生), 악공(樂工) 등은 대체로 복두, 개책 등을 쓰고 단령에 대(帶), 화(靴) 등 착용하였는데¹²⁾ 이 차림이 현재에도 계승되고 있다. 최근 연주에서도 궁중음악을 연주할 때는 <그림 1>¹³⁾과 같이 남성 연주자는 가슴과 등에 흉배(胸背)를 부착한 붉은색 단령 형태의 홍주의를 착용하고 있다. 여성 연주자는 주로 보(補)가 달린 당의를 착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남성 연주자와 마찬가지로 홍주의를 착용하거나 『악학궤범』의 여기(女妓)복식을 참고하여 머리띠인 대요(臺腰)를 쓰고 단의(丹衣)에 상(裳)을 두른 형태를 취한 경우도 있었다.¹⁴⁾

정악 중에서 양반층이 풍류 음악을 즐길 때에는 양반 복식을 착용하였는데 최근에도 유사한 의복을 착용하고 있다. 남성 연주자는 <그림 2>¹⁵⁾와 같이 바지, 저고리 위에 포(袍)를 착용하며, 포만 단독으로 착용하거나 그 위에 답호나 전복을 착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여성 연주자는 치마, 저고리 또는 배자 등을 착용한다. 한편 민속악은 일반서민이나 천민에



<그림 1> 국립국악원 정악단
- <http://www.gugak.go.kr>



<그림 2> 국립국악원 정악단
- <http://www.gugak.go.kr>



〈그림 3〉 전남도립국악관현악단(2013)
- <http://www.jgk.or.kr>



〈그림 4〉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 <http://www.gugak.go.kr>



〈그림 5〉 서울시국악관현악단(2013)
- <http://sjartgroups.or.kr>



〈그림 6〉 국립국악관현악단(2011)
- <http://www.ntok.go.kr>

서 영위되었던 음악으로 농악, 시나위, 무악, 산조, 민요, 잡가, 판소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¹⁶⁾ 연주 시 남성은 두루마기를, 여성은 치마, 저고리를 착용하는 등 서민의 평상복 차림이 대부분이다.¹⁷⁾

창작악은 1950년대 이후 시작되었으며 관현악곡, 실내악곡, 기악 독주곡 등 다양한 구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악 관현악은 서양 근대 교향 관현악(symphony orchestra)과 유사한 구성으로서 관·현·타악기를 포함한 60-120명의 연주자로 이루어지며, 지휘자의 통제 아래 연주된다. 실내악에서는 각 파트가 단독주자(單獨奏者)에 의해서 연주되며, 최근 전통 국악이 아닌 보다 대중적인 접근이 쉬운 퓨전 국악 실내악단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국악 교향악단이나 국악 실내악단은 최근에 등장한 연주 형태로 다수의 연주자로 구성되므로 비교적 단순한 한복을 단체복으로 착용하거나 양복, 또는 서양복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된 한복을 착용한다. 〈그림 3〉¹⁸⁾과 같이 변형된 한복을 입거나 재킷, 셔츠와 블라우스, 조끼, 그

리고 바지와 치마 등 양복을 착용하기도 한다. 또 〈그림 4〉¹⁹⁾와 같이 검은색 양복에 깃과 끝동 등의 한복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남성 연주자와 여성 연주자의 성별에 따라 연주단복에 차이를 보였다. 현재 국악 연주단의 구성에 있어서 남녀 혼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통적으로 국악에서 악인은 대부분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1962년 이후 여성 국악인이 편입되면서 연주자의 공연의상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²⁰⁾ 〈그림 5〉²¹⁾와 같이 형태적으로 남성 연주자는 담호를 입고 여성 연주자는 치마,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다. 또, 색상에서도 남성은 붉은 계열, 여성은 푸른 계열로 성별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림 6〉²²⁾에서도 남성 연주자는 바지, 저고리와 전복을 착용한 반면 여성 연주자는 치마, 저고리와 짧은 배자를 입고 있다. 동일한 연주단 내에서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에 따라 다양한 색상과 형태가 혼재되는 것은 전통적인 한복의 남녀구분에 따른 것이나 연주

단복으로서의 통일성이 저해되므로 일관된 공연 내용이 전달되기 힘든 단점이 있다.

셋째, 최근 국악 연주의 내용이 변화되면서 악기 구성도 상당히 다양해졌으며, 연주 방법 역시 전통적인 방법에서 탈피하고 있다. 현재 국악단의 악기 구성을 보면 크게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악파트가 포함된다. 현악기에는 아쟁, 해금, 거문고 등이 있고, 관악기에는 대금, 단소 등이 포함되며 타악기에는 편경, 징 등이 있다.²³⁾ 악기별로 연주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현악기의 경우에는 악기를 대부분 무릎이나 받침대 위에 얹고 연주하며 관악기는 바닥에 앉거나 서서 팔을 들어 악기를 입에 대고 연주한다. 현악기의 경우에는 바닥이나 의자에 앉아서 연주하거나 악기를 무릎에 얹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의 윗부분의 표현이 효과적이며 하체 부분의 여유가 필요하다. 관악기는 팔을 들고 연주하므로 소매 부분의 연출이 효과적이고 편안한 호흡을 위한 디자인이 필요하다.²⁴⁾ 이와 같이 악기에 따른 국악 연주복이 요구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서양 악기 연주복에서 악기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연주복을 디자인하는²⁵⁾ 것과 달리 실제 국악 연주단복에서는 악기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국악연주 방법은 바닥에 앉아서 연주하는 경우와 행진하면서 연주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정악과 민속악은 전통적인 연주 방법에 따라 <그림 1>, <그림 2>와 같이 바닥에 앉거나 서서 연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향악이나 실내악의 경우에는 <그림 3>, <그림 4>와 같이 서양악기 연주와 유사하게 의자에 앉아서 연주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연주방법의 변화에 부응하는 연주단복이 요구된다.

Ⅲ. 국악 연주단을 위한 연주복 디자인 개발

1. 연주자의 디자인 선호도 조사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국악 연주단복이므로 단체복이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착용할 수 있으며, 연주 전후에 탈착을 쉽게 하기 위해 배자와 두루마기와 같이 저고리 위에 덧입는 외의(外衣)를 개발하는 것으로 아이টে임을 제한하였다. 또 이번 연구는 국악 연주복의 형태, 소재, 색채, 장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제작 방법과 부분적인 형태 등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였다.

연주단복 디자인 개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지방 소재의 국악 연주단체 연주단원과 서울 소재 대학의 국악과 학생 중 국악 연주단 연주 경력이 있는 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설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연령 및 연주 악기 등에 대한 기본조사 5문항과 디자인 조사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에 앞서 국악 연주자 3인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와 예비설문을 하였다. <표 1>과 같이 디자인 조사항목은 연주복의 형태, 무늬, 장식, 색상, 소재로 구성하였다. 색상과 소재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고자 스와치를 붙인 샘플북을 응답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중 불성실 또는 부정확한 응답지를

<표 1> 디자인 선호 조사를 위한 설문지 구성

측정변수		문항 번호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연주단 경력, 연주 분야, 연주단 성격	1-5번
형태 선호도	여밈의 정도, 깃의 유무, 깃이 목을 감싸는 정도, 소매 길이, 소매통 너비, 실루엣, 옷길이, 고름의 개수와 길이	6-13번
무늬 선호도	무늬의 종류, 무늬의 크기, 무늬의 분포도, 무늬의 선명도	14-17번
장식 선호도	장식의 종류	18번
색상 선호도	색상, 색상 선호의 이유, 명도, 채도	19-22번
소재 선호도	투명도, 광택, 질감	23-25번

〈표 2〉 설문대상자의 기본 정보

속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9	12.9
	여성	61	87.1
연령	30세 미만	43	61.4
	30세 이상	27	38.6
연주단 경력	10년 미만	30	43.5
	10년 이상	40	56.5
연주 분야	성악	12	17.1
	현악기	34	48.6
	관악기	24	34.3
연주단 성격	정악단	4	5.7
	민속악단	1	1.4
	창작악단	8	11.4
	구분없음	57	81.4

제외한 70부를 유효 설문으로 처리하였다. 응답자의 기본 정보는 〈표 2〉와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악연주단에서 공연 의상의 특성은 곡의 장르에 따른 연주단의 성격과 성별, 공연 내 역할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설문결과에서는 연주단 성격의 구분이 없는 경우(81.4%)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므로 연주단의 성격에 따른 분석은 이번 연구에서는 논외로 하고 성별과 연주파트별 구분에 따라 연주복의 디자인 선호 경향을 분석하였다. 단, 국악 연주단의 기악파트에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가 있으나 본 설문의 조사대상자에는 타악기 연주자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1) 성별에 따른 디자인 선호 분석

형태에 대한 선호 디자인을 보면, 남녀 모두 적당히 날씬한 실루엣(남성 88.9%, 여성 83.6%)을 선호하였으며, 깃이 있고(남성 87.5%, 여성 78.0%) 높이는 보통 정도(남성 55.6%, 여성 64.2%)를 선호하였다. 소매길이는 손목 길이(남성 66.7%, 여성 47.5%)를, 옷길이는 허리선 이하(남성 88.9%, 여성 56.7%)를, 고름 형태는 짧은 고름 한 쌍(남성 50.0%, 여성 58.3%)을 선호하였다. 여밈에 있어서 남성이 보통 여밈을 선호(50.5%)하고 여성은 여밈이 아주 깊은

것을 선호(45.0%)하였으며 소매에서 남성이 넓은 소매를(66.7%), 여성이 보통 소매를(55.0%) 선호하는 점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무늬에 대한 선호에서는 여성이 꽃무늬(41.7%)를, 남성이 선무늬(33.3%)를 선택하여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남녀 동일하게 무늬가 없는 것에 대한 선호(남성 33.3%, 여성 28.3%)도 높게 나타났다. 무늬의 크기, 분포 및 선명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크기는 보통(남성 66.7%, 여성 69.0%)을, 분포는 드문드문한 것(남성 100.0%, 여성 79.7%)을, 선명도는 잘 보이는 정도(남성 44.4%, 여성 45.8%)를 선호하였다. 또한, 장식에서도 남녀 동일하게 자수(남성 44.4%, 여성 43.9%)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였다.

색상은 물체색의 색이름(KS A 0011)에 따라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나누고, 유채색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연두색, 초록색, 청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자주색, 분홍색, 갈색으로, 무채색은 백색, 회색, 흑색으로 구분하여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여성 연주자가 다른 색에 비하여 검은색에 대한 높은 선호도(24.6%)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남녀 모두 모든 색상에 대해 고루 선택하였고, 남녀의 선호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명도는 밝은 것(남성 77.8%, 여성 41.7%)을, 채도는 맑은 것(남성 55.6%, 여성 54.1%)을 제일 선호하였다.

소재는 반투명한 것(남성 77.8%, 여성 55.7%)과

광택이 있는 것(남성 77.8%, 여성 59.0%)을, 질감은 매끈한 것(남성 100.0%, 여성 55.7%)을 선호하여 남녀 간의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았다. 연주복에 대한 남녀 선호도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현재 국악 연주단에서 남녀 성별에 따라 형태와 색상에 구분을 두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2) 악기별 디자인 선호 분석

선호 실루엣은 적당히 날씬한 형태를 적극적으로 선호(성악 81.8%, 현악기 85.3%, 관악기 83.3%)하였다. 전통적인 실루엣인 넉넉한 항아리 형태보다 몸에 붙는 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한복 고유의 풍성한 실루엣에 대한 선호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선호하는 외의(外衣)의 길이로 성악파트에서는 허리선 이상인 길이를 대체로 선호(72.8%)하였고, 기악파트는 엉덩이나 무릎 아래의 길이 등의 허리선 아래의 비교적 긴 길이를 선호(현악기 54.5%, 관악기 79.2%)하는 것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주로 악기 연주자들이 바닥이나 의자에 앉아서 연주하기 때문에 하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비교적 긴 길이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밈에서는 <표 3>에 보듯이 파트에 관계없이 깊이 여미거나 아주 깊이 여미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는 연주 시 여밈이 얇을 경우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며 최근 한복 여밈의 유행도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깃은 있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깃이 목을 감싸는 정도에 대해서는 파트와 상관없이 보통 높이를 선호하였는

데, 관악기의 경우 깃 높이에 대해 높음(26.1%), 보통(43.5%), 낮음(30.4%)으로 개인별로 다양하게 응답하였다. 즉 입으로 부는 관악기의 특성상 관악기 연주자는 다른 악기 연주자보다 깃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개인의 취향에 따른 다양한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름은 대개 짧은 고름 한 쌍을 선호(성악 81.8%, 현악기 57.6%, 관악기 43.5%)하였으나, 고름이 없거나 짧은 고름과 긴 고름이 섞인 형태도 일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한복에서 고름이 짧은 형태가 유행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디자인적으로 고름 길이나 형태에 대하여 다양한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매의 길이는 <표 4>와 같이 민소매, 7부 길이, 손목 길이로 나누어 설문하였는데 성악과 관악기는 손목 길이(성악 63.6%, 관악기 62.5%)를, 현악기는 민소매(39.4%)를 선호하였다. 특히 현악기 연주자들은 민소매뿐 아니라 7부, 손목 길이 등 다양한 길이에 대한 선호를 나타냈었는데 팔 동작이 크므로 어깨 부분의 활동성과 미적인 감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소매에 대한 다양한 기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소매통은 좁은 소매, 보통 소매, 넓은 소매로 선호를 조사하였는데, 대체로 보통 소매를 선호하였다. 넓은 소매에 대해서는 관악기가 비교적 높은 선호(54.2%)를 보였다. 즉 관악기는 소매의 길이보다는 너비에 관심을 두며, 소매통이 좁은 것이 연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팔을 주로 사용하는 현악기는 좁거나 넓은 것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표 3> 선호하는 여밈의 정도와 깃의 높이 (%)

		연주 분야		
		성악	현악기	관악기
여밈 정도	맞깃	0	9.1	8.7
	조금 여밈	0	6.1	21.7
	깊은 여밈	54.5	45.5	26.1
	아주 깊은 여밈	45.5	39.4	43.5
깃 높이	높음	0	14.3	26.1
	보통	90.0	71.4	43.5
	낮음	10.0	14.3	30.4

〈표 4〉 선호하는 소매 길이와 너비 (%)

		연주 분야		
		성악	현악기	관악기
길이	민소매	36.4	39.4	20.8
	7부 길이	0	24.2	16.7
	손목 길이	63.6	36.4	62.5
너비	좁은 소매	20.0	17.6	8.3
	보통 소매	40.0	64.7	37.5
	넓은 소매	40.0	17.6	54.2

생각된다.

무늬는 꽃무늬(성악 60.0%, 현악기 32.4%, 관악기 37.5%)를 가장 선호하였고, 무늬 없는 것(성악 10.0%, 현악기 38.2%, 관악기 25.0%)에 대한 선호도 높았다. 무늬의 크기는 〈표 5〉에서처럼 대체로 큰 것 보다는 작거나 보통 크기를 선호하였다. 무늬의 분포는 드문드문한 것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이었으며, 선명도에서도 무늬가 잘 보이지 않거나, 잘 보이는 것이 대부분으로 무늬가 두드러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선호가 낮았다. 이와는 달리 장식에서는 장식이 없는 것(성악 0%, 현악기 9.3%, 관악기 12.5%)에 대한 선호는 낮고, 자수(성악 77.8%, 현악기 40.6%, 관악기 37.5%)를 가장 선호하며 다음은 금박과 은박(성악 22.2%, 현악기 25.0%, 관악기 29.2%)이었다. 종합하면 소재의 무늬는 두드러지지 않는 작고 드문드문한 꽃무늬를 선호하는 반면 연주자를 돋보이게 하고자

자수 등의 장식이 있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색상은 성악 파트는 파란색, 자주색 등을 선호하였고, 현악기 연주자는 연두색, 남색, 흑색 등을, 관악기 연주자는 연두색, 청록색, 파란색, 백색, 흑색 등을 선택하였다. 특히 무채색에 대해 성악 파트(10.0%)에 비해 기악 파트(현악기 37.5%, 관악기 52.2%)의 선호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악기(51.5%)나 관악기(45.8%)에서는 색상을 선호하는 이유로 통일감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이는 성악에 비하여 합주를 많이 하는 공연 구성을 보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선호하는 명도는 〈표 6〉과 같이 파트에 상관없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났다. 채도 역시 맑은 쪽이 우세하나 약간 탁하거나 탁한 채도에 대한 선호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개인적인 취향이 강하게

〈표 5〉 선호하는 무늬 (%)

		연주 분야		
		성악	현악기	관악기
크기	작은 크기	0	35.5	20.8
	보통 크기	90.0	61.3	66.7
	큰 크기	9.1	3.2	12.5
분포	드문드문한	90.9	84.4	73.9
	빽빽한	9.1	15.6	26.1
선명도	잘 보이지 않는	54.5	53.1	25.0
	잘 보이는	45.5	37.5	54.2
	두드러지는	0	9.4	20.8

〈표 6〉 선호하는 색채 (%)

		연주 분야		
		성악	현악기	관악기
명도	밝은	54.5	42.4	50.0
	약간 어두운	18.2	42.4	33.3
	어두운	27.3	15.2	16.7
채도	맑은	63.6	52.9	54.2
	약간 탁한	27.3	35.3	29.2
	탁한	9.1	11.8	16.7

〈표 7〉 선호하는 소재 (%)

		연주 분야		
		성악	현악기	관악기
투명도	투명한	18.2	23.5	0.0
	반투명한	63.6	52.9	66.7
	불투명한	18.2	23.5	33.3
광택	광택이 없는	45.5	26.5	16.7
	광택이 있는	45.5	58.8	70.8
	반짝이는	9.1	14.7	12.5
질감	매끈한	36.4	52.9	83.3
	약간 거친	63.6	47.1	16.7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재의 투명도에 대한 선호는 〈표 7〉에서 보듯이 반투명한 것이 높았다. 광택은 대체로 광택이 있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질감은 성악 파트는 약간 거친 것을 선호하는 반면, 기악 파트는 매끈한 것을 더 선호하였다.

2. 연주복 디자인 제시

앞서 조사한 바와 같이 현재 대부분의 국악 연주단에서는 정악만 연주하기보다는 민속악, 창작악 등 다양한 장르를 연주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악공복의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민속악 등을 연주할 때 착용하였던 포(袍)를 응용하여 연주단복을 디자인하였다. 국악 연주인에 대한 디자인 선호 조사 결과, 연주 악기에 따라 소매에 대한 선호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므로 포 중에서 소매의 길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답호(襟護)의 형태를 반영하여 국악 연주단복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성악 파트는 선호하는 옷의 길이 및 구성 등이 기악 파트와 확연히 차이를 보였는데 현재 국악 연주단에서도 기악 파트보다는 공연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체복에 중점을 두는 본 연구에서는 현악기와 관악기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표 8〉과 같이 기본 도식화, 색상과 무늬 및 장식을 적용한 도식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주단복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연주자의 성별에 따른 연주복 선호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남녀 동일한 디자인을 제시한다. 전통적인 한복에서 나타나는 남녀 의복 구분에서는 벗어나지만, 연주의 통일성을 꾀할 수 있으며 연주복의 제작이나 경제성,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남녀 공통의복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연주내용에 따라 내의(內衣)를 통하여 남녀 구별을 추구할 수도 있다. 제시한 디자인은 외의이므로 받침옷으로 여자는 셔츠와 바지 및 스커트의 서양복이나 바지, 저고리 또는 치마, 저고리의 한복을 모두 착용 가능하다. 대부분 연주단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국악 연주를 하고 있으므로 연주곡의 특성에 따라 내의와 외의를 조합하여 다양한 연주복으로 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악기별로 소매의 길이, 소매통 그리고 옷길이에 대한 선호가 차이가 있었으므로 현악기는 소매 없는 포를 디자인에 적용하였고 관악기는 손목 길이에, 소매통이 넓은 소매로 디자인하였다. 옷길이는 현악기와 관악기 모두 허리선 이하의 길이로 제시하였다. 다만 길이가 긴 디자인의 경우, 활동의 편의성을 위해 무나 옆선, 또는 뒤에 트임이 필요하므로 실제 디자인에서는 겨드랑이 아래에서 도련까지 옆트임을 주어 충분한 여유를 두고자 한다. 깃은 적당한 높이, 여밈은 보통인 디자인으로 하며, 고름은 짧은 고름 한 쌍으로 하되 스냅으로 여분의 다른 색 고름을 하나 더 추가하여 공연에 따라 달리 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연주복단의 색을 양면을 다르게 하여 깃을 포함하여 한쪽은 연주자들이 제일 선호한 무채색을, 다른 쪽은 유채색 중 선호도가 제일 높은 연두색으로 한다. 또 연주 구성에 따라 독주자가 있는 경우 독주자는 시선을 끄는 유채색으로 하고 연주단은 차분한 무채색 계열로 하여 연주 구성에 따른 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연주 내용과 단체복으로서 경제성을 감안할 때 연주복의 양면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이

와 같이 안감을 활용하는 것은 서양복과 다른 전통적인 한복의 미의식에도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정은 양면을 동일하게 흰 색으로 하여 전통적인 한복의 특징을 강조하고자 한다.

넷째, 소재는 광택이 있는 반투명 소재로 주로 사(紗) 종류로 하고 무늬는 드문드문 시문되어있는 작은 꽃무늬를 선택하였다. 연주자들은 뽀뽀한 무늬보다는 드문드문한 무늬를 선호했으므로 조선 중기의 산점형 꽃무늬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²⁶⁾ 따라서 조선시대 직물에서 나타난 <그림 7>²⁷⁾의 꽃무늬를 차용하여 도식화에 적용하였다. 연주복이므로 일상적인 내구성보다는 무대 위에서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 걸감, 안감과 심지를 사용하는 구성 방법 대신에 심지를 제외하고 양면 모두 걸감으로 사용하여 무대 연출에 따라 안팎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이에 따른 것이나 여밈 등의 구체적인 한복 구성에 대한 방법은 추후 국악 연주복 제작에 대한 연구에서 이어질 것을 제안한다.

또 장식에 대한 설문에서 연주자들은 자수 장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악공복에서도 『악학궤범』의 홍주의, 녹주의에 부착된 흉배에 모란[牡丹]무늬가 있으며, 대표적인 자수 유물인 활옷에서도 모란무늬를 찾을 수 있으므로 <그림 8>²⁸⁾과 같이 모란 자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자수를 장식 브로치로 탈부착할 수 있게 개발하여 곡의 장르나 무대의 분위기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장식 브로치는 연주복에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았으므로 자수 장식 또한 남녀 공용으로 적용하였다. 이외에도 『악학궤범』에 나타나는 난봉(鸞鳳) 등 다양한 자수 무늬가 장식 브로치로 개발될



<그림 7> 동래정씨 대령금의 꽃무늬와 일러스트
- 조선시대 피륙의 무늬, p. 97



<그림 8> 민속박물관 소장 활옷과 일러스트
- 활옷의 역사와 조형성 연구, p. 88

〈표 8〉 연주복 도식화

악기별 디자인	현악기	관악기
기본 도식화		
color mapping		
pattern mapping		
장식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악 연주환경과 연주복의 변화에 따른 연주단복을 개발하고자 실제 연주단체에서 착용하고 있는 연주단복의 현황을 고찰하고, 국악 연주단에 속한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연주단복의 형태, 무늬, 장식, 색상, 소재에 대해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악 공연 환경에 적합하고, 연주자의 실질적 요구에 부합하는 연주단복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주단복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착용할 수 있으며 착탈이 용이한 외의(外衣)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재 국·공립 국악 연주단에서 착용하고 있는 연주단복을 고찰한 결과 연주곡의 특징과 성별에 따라 공연의상에 차이가 있었다. 한복이나 현대적으로 변화된 한복 뿐 아니라 양복이 착용되기도 하였다. 동일 연주단 내에서도 성별에 따라 연주복에 차이를 보였으나, 연주하는 악기에 따른 디자인 구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악기별 디자인 선호도 결과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선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악기의 특성에 따른 선호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여 남녀 구별이 없는 외의의 형태로 디자인하였으며 악기 특성에 따라 현악기의 경우 민소매로 하였고, 관악기의 경우 손목 길이의 적당히 넓은 소매로 하였으며 모두 적당히 몸에 맞는 품에 옷길이는 엉덩이 아래까지로 하였다. 소재는 반투명하고 광택감이 있으며, 작은 꽃무늬가 있는 사(紗)로 걸감과 안감을 하였으며 안팎으로 입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악 연주단복이므로 단체의 통일성과 조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악기별로 형태는 차이가 있으나 소재와 색, 무늬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하였다. 색과 소재는 겉과 안을 달리하여 양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연에서의 독주자와 합주자의 역할에 따라 겉과 안을 달리하여 차별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연구는 국악 연주단체의 특성과 실제 연주자

의 디자인 선호를 바탕으로 연주단복이 제시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일부 연주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므로 한정적이었다는 데에 제한점이 있다. 이후에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복의 유행과 미적인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연주단복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또 향후 국악 연주단복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한복이 착용되는 공연의상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실질적인 연주복으로 개발되는 한복 제작을 위한 구성 및 제작 방법, 사이즈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수정 (2007), 피아노 연주자의 연주복 구매행동과 디자인 선호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지현, 김미영 (2005), 클래식 음악 연주복에 대한 의복 태도와 디자인 선호도 연구, *복식*, 55(8), pp. 99-111; 여승화, 정삼호 (2004), 악기 종류에 따른 기능적인 연주복 디자인 연구, *복식*, 54(4), pp. 75-84; 윤지영 (2004), 원의 율동성을 응용한 파이프오르간 연주복 디자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윤, 홍정민 (2003), 연주복 선호 디자인에 따른 패턴 연구: 피아노와 성악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5), pp. 465-469; 이연희 (2000), 연주복을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의상 디자인,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박소연 (2013), 종묘제례악 악인 복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영수 (1985), 樂學軌範에 나타난 樂人服飾의 溯源의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순자 (1981), 朝鮮王朝時代 樂人服에 관한 研究, *복식*, (5), pp. 83-101.
- 3) 김예지 (2013), 근현대 한국 전통음악 공연의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4) 유주연 (2007), 국악공연을 위한 무대의상 디자인 연구: 가야금연주자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영삼, 김성수 (2013), 창작 음악극의 무대의상 연구-국악칸타타 “나는 일어나리라”를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4(5), pp. 730-738.
- 6) 오경아 (2008), 국악기 연주복 디자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이연희, 최현숙 (2000), 연주복을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 의상 디자인 연구, *디자인포럼* 21(3), p. 49.
- 8) 이연희, 최현숙 (2000), *op. cit.*, p. 50.
- 9) 이수정, 이지연, 박명자 (2007), 피아노 연주자의 연주

- 복 구매행동과 디자인선호도,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9(3), p. 120.
- 10) 변지현, 김미영 (2005), *op. cit.*, pp. 103-104.
 - 11) 김중현 (2010), 국악관현악단의 운영상 문제점과 발전 방안: 국·공립 단체를 기준으로, *음악과 문화*, 23, p. 161.
 - 12) 박가영 (2004), 『악학궤범』 복식의 착용에 관한 연구, *국악원논문집*, 16, pp. 31-26.
 - 13) 자료검색일 2014. 4. 15, <http://www.gugak.go.kr/site/gugak/menu/1498.do?configNo=163&cmd=read&contentNo=56261>
 - 14) 김예지 (2013), *op. cit.*, p. 32.
 - 15) 자료검색일 2014. 4. 15, <http://www.gugak.go.kr/site/gugak/menu/1498.do?configNo=163&cmd=read&contentNo=56224>
 - 16) 임수철 (1993), *OK국악 정악편*, 서울: 작은우리, p. 21.
 - 17) 김예지 (2013), *op. cit.*, pp. 20-24.
 - 18) 자료검색일 2014. 4. 17, http://www.jpg.or.kr/bbs/board.php?bo_table=gallery&wr_id=287&page=23
 - 19) 자료검색일 2014. 4. 15, <http://www.gugak.go.kr/site/gugak/menu/1498.do?configNo=163&cmd=read&contentNo=56258>
 - 20) 김예지 (2013), *op. cit.*, p. 31.
 - 21) 자료검색일 2014. 4. 18, http://sjartgroups.or.kr/album/view.asp?currPage=2&bcode=PERFORM_SKE TCH&seq=14167&artGroupCode=9&companyName=tradition&orderby=SEQ&skey=TITLE&sval=
 - 22) 자료검색일 2014. 4. 20, <http://www.ntok.go.kr/user/jsp/board/view>
 - 23) “악기”, 자료검색일 2014. 7. 20,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 24) 오경아 (2008), *op. cit.*, pp. 33-36.
 - 25) 이연희, 최현숙 (2000), *op. cit.*, pp. 57-58.
 - 26) 조효숙 (2008), 조선시대 직물의 시기감정을 위한 꽃무늬 조형특성 연구, *복식*, 58(5), p. 89.
 - 2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2), 조선시대 피륙의 무늬, 서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 97.
 - 28) 권혜진 (2009), 활옷의 역사와 조형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88.